

‘호랑이 군단’ 2018 시즌 준비 돌입...휴식기에도 몸만들기 한창

윤석민
어떤 변명도 무의미

곽정철
건강한 시즌

안치홍
장거리 약해서

김민호 코치
코치도 체력 싸움

챔스필드 벌써 뜨겁다



KIA 타이거즈의 곽정철(왼쪽부터), 박지훈, 한승혁, 박준태, 안치홍이 2일 챔피언스필드 웨이트장에서 개인훈련을 하고 있다.



챔피언스필드 외야에서 러닝을 하는 박준태(앞쪽)와 안치홍.



‘호랑이 군단’의 2018년이 뜨겁게 막을 올렸다.

새해 연휴가 끝난 2일 챔피언스필드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1월 휴식기지만 이날 챔피언스필드는 새해, 새출발을 준비하는 KIA 선수들로 북적거렸다.

지난해 부상으로 고전했던 투수 곽정철과 박지훈은 실과 바늘이 되어 훈련을 했다. 두 사람은 웨이트와 체력훈련은 물론 캐치볼까지 소화하면서 부상 없는 시즌을 다짐했다.

곽정철은 “사람들의 새해 인사가 다 ‘아프지 말라’이다(웃음). 건강하게 올 시즌 보내겠다”며 “(박)지훈이와 캐치볼을 했는데 공이 정말 좋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수술 후 재활을 하느라 2017시즌을 시작도 못 해봤던 윤석민도 복귀를 위해 운동화끈을 동여댔다. 연말 부지런히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던 윤석민은 1일에도 나홀로 출석 도장을 찍었다.

“어제 경기장에 나왔다가 감독님을 보았다”고 웃은 윤석민은 “며칠 동안 혼자 볼 켜고 들어와서 운동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동료들과 새해 인사를 주고 받았다.

“마음이 급했다”며 지난 시즌을 돌아본 윤석민은 “말이 아닌 행동”을 이야기했다.

윤석민은 “재활 과정에서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 지금은 어떤 말과 변명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나도 이제 경정을 해야 한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12월 개근생 중 한 명인 한승혁 역시 아쉬움의 2017시즌을 털고, 올 시즌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다.

한승혁은 “지난해 준비를 잘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못 했다. 지난 시즌의 실패를 발판 삼아 믿음을 줄 수 있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땀을 쏟았다.

2017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이를 악문 선수들도 눈에 띄었다. ‘V11’의 주역인 내야수 안치홍, 외야수 이명기, 포수 김민식 등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8시즌 첫 훈련에 나섰다.

안치홍은 웨이트에 이어 경찰청에서 함께 했던 후임 박준태와 외야 러닝을 하는 것으로 새해 첫 훈련을 마무리했다. ‘러닝’은 KIA 선수들의 2018시즌을 위한 숙제다. 지난겨울 쉬어갔던 체력테스트가 이번 캠프를 앞두고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안치홍은 “장거리에 약해서 걱정이 다. 몸 상태가 완벽할 때도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 예전에 오키나와 훈련에서 7km를 뛰었는데 팔찌를 했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내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둔 김주형, 서동욱, 최정민 등도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새해 기지개를 켜었다.

김민호 수비 코치도 선수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눈길을 끌었다. 김민호 코치는 “코치들도 캠프 준비를 해야 한다. 캠프에서 훈련 진행하려면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만큼 체력이 필요하다”며 훈련으로 새해를 열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손흥민, 메시 옆에서 뛰는 격”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 “뛰어난 활약에도 주목 못받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사진 오른쪽) 감독은 최근 물오른 기량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영국 현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포체티노 감독은 2일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을 손흥민 칭찬에 할애했다. 그는 마치 손흥민을 ‘이른 손가락’으로 여기는 듯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라며 “기록 없는 플레이를 펼치며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손흥민은 영국 현지에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손흥민은 해리 케인 등 엄청난 활약을 하는 팀 동료들에 밀려 주목도가 떨어진다”며 “마치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옆에서 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케인은 최근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작

성하는 등 2017년 프리미어리그에서 39골을 넣으며 2017년 유럽 5대 리그 최다 골, 프리미어리그 한 해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무시무시한 신기록을 세운 케인이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는 손흥민의 이타적인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은 자신의 포지션 이외의 역할도 잘 수행하는 선수”라며 “그가 있어 전술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윙 등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플레이하는 선수”라고 말했다.

인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데이비드 베컴이 세계적인 아이콘인 것처럼, 손흥민도 (한국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이곳에서 매우 겸손하다. 그를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 월드컵 16강 이상 최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포부

정몽규(사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사상 두 번째로 ‘원정 16강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새해 의지를 다졌다.

정몽규 회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축구협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받았는데, 다양한 비판과 요구가 분출하는 시대의 흐름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올해 젊은 인재로 개편한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맞춰 탄탄한 축구 저변을 만들고 유소년 인재들을 육성하는 한편 대표팀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8대 8 축구가 내년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박지성이 본부장을 맡은 유스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유·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또 현재 11만명인 등록 선수인원을 20만명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2001년 건립된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의 NFC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김영욱과 2020년까지 연장계약

전남 드래곤즈가 유스 출신인 김영욱(사진)과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2020년까지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하고 2010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김영욱은 8시즌 동안 177경기에 출전, 12골 15도움을 기록하며 전남의 원클럽맨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영욱은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수비와 공격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스피드와 체력, 투혼 넘치는 플레이가 장점이다.

유상철 감독은 “전남이 자랑하는 유스에서 키워낸 대표적인 선수이다.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전남의 상징성을 가진 전남의 스타로 키울 것이다. 또한 김영욱 선수가 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믿음을 나타냈다.

김영욱은 “새로 오신 유상철 감독님께서 팀에 잔류하길 원하셨다. 그리고 작년 시즌 개인적으로나 팀한테도 힘든 시즌이었는데 끝까지 응원해준 팬분들께 너무나 감사함을 느꼈다. 힘들 때 응원을 보내



이신 김인완 선생님께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올해에는 꼭 팬분들이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은 또 측면 공격력 강화를 위해 포항에서 활약한 완델손을 1년 임대 영입했다.

완델손은 원발 크로스가 정확하고 화려한 테크닉을 이용한 측면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로, 윙 포워드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로도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이다. 완델손은 2015년 대전을 통해 K리그 무대에 데뷔해 제주, 포항에서 뛰었으며 K리그에서 66경기에 출전해 16득점 10도움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10개 구단 2월 1일 스프링캠프

3월 24일 개막...8월 18일~9월 2일 2차 리그 휴식기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프로야구 KBO리그 10개 구단의 대권 레이스도 힘차게 막을 올린다.

10개 구단은 2월 1일 외국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하고 3월 초에 국내로 돌아와

정규리그를 준비한다.

KBO가 아직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개막일은 3월 24일로 결정됐다.

올해에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아시아인 게임이 열린다. KBO는 정규리그 개막일을 앞당겼고, 아시아게임 기간 정규리그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7 통합 챔피언’ KIA는 이달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 3월 8일까지 2연패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를 비롯해 한화, 삼성 3개 팀이 오키나와에서만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NC, 넥센, kt 3개 팀은 미국에서만 겨

울을 난다. 3개 팀은 미국 애리조나 서프라이즈, 투산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샌버너디노 등에서 훈련을 한다.

두산은 호주 시드니에서 몸을 풀 뒤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한다. 롯데는 대만 가오슝으로 갔다가 일본 오키나와로 합류한다. SK와 LG는 각각 미국 플로리다 베로비치,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비지함을 즐기고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간다.

/연합뉴스